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 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알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482호

서기 2004년 7월 14일 (음력 5월 27일) 수요일

29

법공양 페이지

마음으로 쥐고 있지 말고 찰나찰나 놓고 가라

틀을 깨고 삶을 바꾸려면...

문 부처님께서 증생들을 해안으로 보실 때에 증생 나뭇대로의 정해진 길이 다 보이고, 그래서 아마 부처님께서도 개개인의 문제를 대신 해 주지 못하는 데 대해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연 없는 증생은 부처님도 어쩔 수 없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삶을 바꾸고 증생 개개인의 굴레라고 할까, 틀을 타파하여 참된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을지요?

답 나는 누가 이렇게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불쌍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걱정할 게 없지 않느냐. 너도 불쌍한 대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니까 불쌍하지 않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불쌍하다 하면 불쌍하지 않은 게 딱치고 불쌍하지 않다 하면 불쌍한 게 딱쳐오니 그거를 어떻게 말할 해야 옳으냐 이겁니다. 그럼 불쌍하다 불쌍하지 않다를 다 보라. 믿고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 미래와 이 현재를 딱야 나가느냐 하면 그 양면을 다 놓아라 이겁니다. 믿고 놓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렇게 믿으니가 그대로 자동적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는 천차만별 아닙니까, 어느 곁에 그냥 부지불식간에 딱쳐오는 것도 있고, 병이 들 때가 있고, 그냥 재산이 몰락하는 수가 있고, 그런 모든 게 딱쳐오는 것이 미리 예고가 온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에 의해서 다 그게 오는 거니까요.

그럼 때에 쫓아라든가 뭔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거를 다 믿고 놓아 버린 상태에서 생각의 생산을 해라 이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어떠한 생각이 들든지 거기 놓아 버리고 선 좋은 생산의 마음을 키우세요. 인공다 그러면 좋은 게 딱칠 거고 좋다 하면 인공은 게 딱칠 테니 이걸 어떻게 해야 올랐습니까. 그러면 이 양면을 다 보라, 믿어라 이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체 없는 그릇에다가 놓을 것도 없지마는 거기다 마음을, 없는 마음을, 그 다가오는 마음을 거기다 놓을 때에 양면을 다 놓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 놓게 된 상태에서 나는 좋게 생각을 해라 이겁니다. 좋게, 아주 죽을 쫓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는 좋은 쫓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그대로 좋고 그대로 밝아 있으니 좋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거죠. 그러면 이 양면이 다 들어가서 그냥 거름이 돼 버리고 그냥 우물우물 자라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마음 쓸쓸이기에 따라서 구멍이에서 나오느냐 들어가느냐 여기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양면을 다 놓고 내 마음 쓸쓸이를 잘 생각을 한다면, 산만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딱쳐오는 대로, 내 앞에 딱쳐오는 대로 그냥 좋게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양면을 믿고 거기다 놓고 그냥 생각을 좋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빨리 다가오는 것도 있고 조금 더딘 것도 있고 아주 더딘 것도 있지만은 인연가는 그것이 들어가면서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 과거로부터 현재로, 현재로부터 미래로, 미래로부터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그 양면을 다 놓는다면, 과거 미래 이것을 다 놓는다면 우리는 생산처에서 자유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 마음먹는 게 자기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미래를 귀신을 만드느냐 부처를 만드느냐, 이것도 바로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집어서 어떻게 말을 해야만 미래를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느냐. 자기가 해 봐야 맛을 알지 해 보지 않고 어떻게 맛을 어느나 이럴 때, 믿고 양면을 놓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타파가 될 것이고, 그게 타파가 된다면 삼세심 내공이 타파가 된다 이거예요. 그냥 왕래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그걸 알게 되거든요. 다. 아주 손살피 나오거든요. 근데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는 사람 앞에 이걸 말로다가 하러니 안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거 공부할 때는 내공에 세우지 않고는 안되니까, 내공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모든 돌아가는 그 근본을 쥐고서 거기다가 믿고, 내가 과거에 살던 것이 지금 현재에 나오는 거, 숨이 나오는 거, 또는 미래로 갈 거, 또 꿈을 꾸는다가 이러한 거를 다 거기다 믿고 놓아라 이겁니다. 거기서 돌아가는 거니까. 거기다 생각을 잘해라. 꿈도 해몽을 잘하면 잘되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생산이다 이거예요. '에이, 저거는 현상 봐도 그 곱이 그 곱이야.' 이

렇게 생각을 하면 그 곱이 그 곱이죠. 또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지금 사는 사람 전부 그래요. 남편한테도 그렇고, 아내한테도 그렇고 또 조상한테도 그렇고 전부, 발레한테도 그렇고 모든 걸, 들질을 보면 보는 대로 이 생각에 따라서 그냥 생각을 해 버리거든요. 근데 물질을 백 가지를 봤더라도 다 그냥 거기에 놓아 버린 뒤에 그 자기가 내면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거예요. 바로 자기한테 부(父)가 있고, 자기한테 스승이 있고, 자기한테 부처가 있고, 자기한테 법신이 있는 것을, 그것을 모르고 풍썩이 풍썩을 저 바깥에서 찾듯이 그렇게 찾는다면 그거는 천 년이 가도 안되고 백 년이 가도 안된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다 어떻게 놓아야 하나요?

문 늘 수행 과정에서 방학차 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곤 합니다. 어디에다 어떻게 놓고 생활해야 공 참선이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방학차를 '방학차이다' 하면 방학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 모두가 참

선이 나올 부르르게 살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믿고 무조건 '너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어.' 하고 뇌라 이겁니다. 그것이 방편 중에 제일 첫번 관문입니다. 제일 지금 필요로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마음 먹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지만은 난 그렇게 어렵다고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이름에 끄달리거나 남의 몸통이에 끄달리거나 허공에 끄달리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못났든 잘났든 자기 마음의 주인이 제일인 것입니다. 그 마음의 주인이 모든 일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겠질랑 하후하후 해 나가면서 누가 하는가 지켜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알 바가 있을 테니까요. 누가 똥을 싸고 있고 누가 자고 있고, 누가 그렇게 말 하고 있고 누가 생각하고 있고, 누가 생각을 잘못해서 구멍이에 빠져서 옮겨 되고 그러는가 한번 잘 지켜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로 돌아간다는 이치를 알고 본다면 모두가 바로 나 아님이 없고 내 이름 아님이 없을 때 비로소 생각을 좋게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비하게 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 마음을 자비하게

답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이랬기 때문에 '공도 색도 둘이 아닌 까닭에 공은 공대로 있고 색은 색대로 들이니라.' 하는 걸로 비유됩니다. 그런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한다면 이치가 납득이 되기가 힘듭니다. '둘이 아닌 까닭에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해야 되겠죠? 모습은 다 다를지언정 뿌리는 한 뿌리이다. 뿌리는 한 뿌리고 생명은 한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모습은 다 다르다. 각계각층이 말입니다. 먹는 것도 각계각층이 천차만별로 다 자기 먹는 게 따로 있듯이, 관중이 먹는 게 따로 있고 사람이 먹는 게 따로 있고 짐승이 먹는 게 따로 있듯이, 모두가 천차만별로 먹고 사는 그 도리를 전체 바다로 비유를 해서 부처님께서는 '바다를 삼키고 토해서 만 중생들한테 각계각층에 먹을 거를 알맞도록 내려 자비를 베푸신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두가, 우주 전체 삼라만상 대천세계가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대천세계를 아주 작게 정맥 동맥으로 비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신세계 물질 세계를 한데 합쳐서 정맥 동맥이라고 한다면, 정맥이 없어서도 안 되고 동맥이 없어서도 안 되죠.

그 자리에서 다 해결하게끔 맡기는 것이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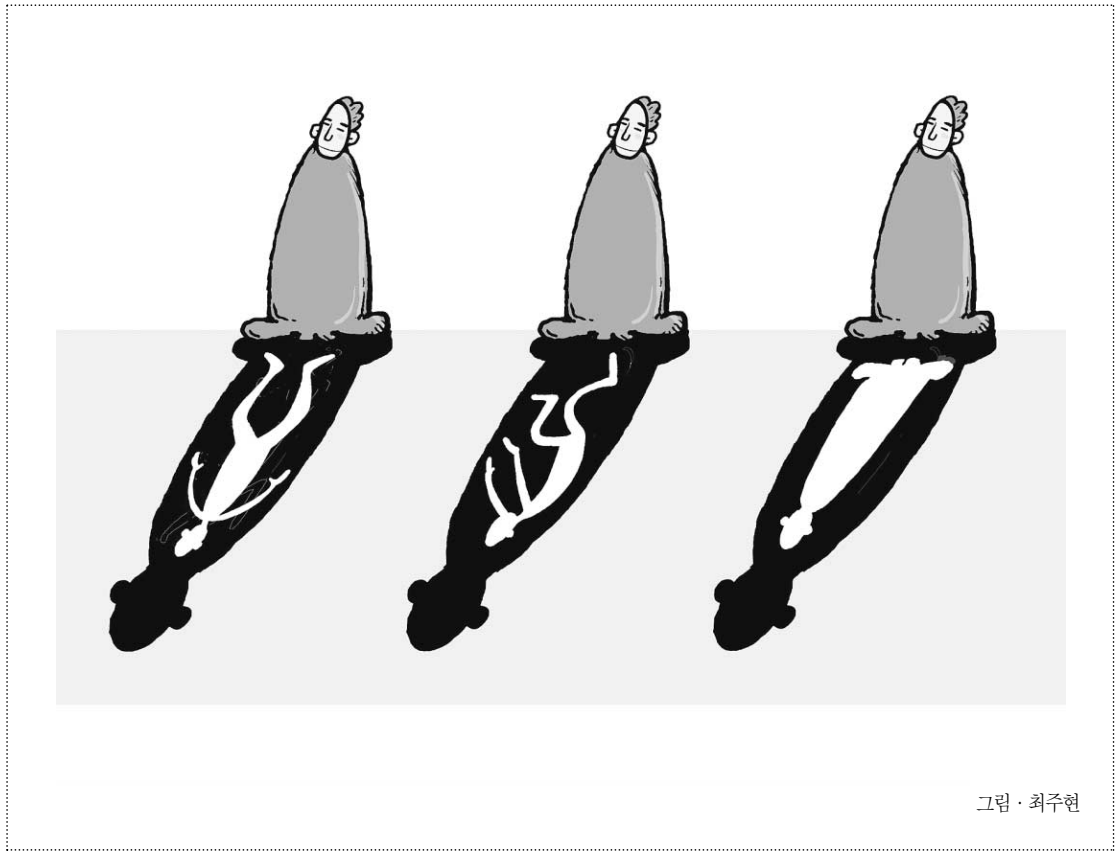


그림 · 최추현

어떤 생각이 들든지 놓고 좋게 생산 되도록 해라

선 아닌 게 없죠. 그러니까 본래 진리라는 것이 고 정된 게 없이 돌아가니까 그대로 거기다 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딱 쥐고 있지 말고 하루 살이로 그냥 찰나찰나, 놓고 가만 말 안 해도 지금 놓고 가는 겁니다. 모두를 놓고 가면서도 그 마음으로 당겨서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자주 걸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래 놓고 가는 건데 마음으로 놓고 가질 않으니깐 '그것 좀 보라, 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또 이차적으로 '아! 네 뿌리에다 보라. 네 뿌리만이 너를, 네 나무를 부르르게 살게 할 수 있으니깐 네 뿌리에 믿고 보라, 보라.' 영 안 놓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아, 내 뿌리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내 뿌리

색즉시공과 산은 산 물은 물

문 진리는 모두 하나로 통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과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신 것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맥 동맥이 둘이 아닌 까닭에 정맥은 정맥대로 있고 동맥은 동맥대로 있다 이런 거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죠? 그렇게 비유를 하면 여러 분이 잘 납득이 되실 것 같아서 전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를 정맥 동맥으로 하나로 묶어서 얘기해 드린 것입니다. 정맥 동맥 양면이 돌아가지 않으면 몸 전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맥과 동맥이 둘이 아닌 까닭에 이룰해서 정맥이라는 이름이 있고 동맥이라는 이름이 있느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물은 물이요 고 산은 산인데' 도 소용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

유롭게 응용하고 살아라 이거지 산이 어떻게 물이 어떻고 이것 따지게 봤습니까, 지금? 우리가 꼭마르면 그냥 먹고 또 나무가 필요하면 나무를 가지고 꽃이 필요하면 꽃을 보고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거지, 산이 고정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물도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몸체가 바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입니다. 우리도 지수화풍이니까요.

육신의 옷을 벗었을 때...

문 우리가 한 철 나왔다가 육신의 옷을 벗었을 때 신령한 의식만 남는다고 했는데 그 의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연어가 자기 몸통이를 형성시켜 놓고 죽듯이, 우리가 자기 겹데기 한 옷을 벗으면 새 옷을 입고 다시 형성이 돼서 나옵니다. 그렇게 한 찰나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생각이 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육신의 옷을 벗게 하는 것도 주인이요 벗지 않게 하는 것도 주인입니다. 이 세상에 나온 것도 주인이요 이 옷을 벗는 것도 주인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입은 것도 없고 벗는 것도 없습니다. 본래 밝아요, 그냥, 그렇게 믿는다면 바로 그것이 진짜 자기 자부심을 찾아서 그대로 행하는 보살인 것입니다. 바로 부처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그래서 차원이 높으면 높은 대로 끼리끼리 모이고, 차원이 낮으면 낮은 대로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가 있다 합니다. 그것도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계지 그 세계가 그대로 그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우리네 마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 철에 차원이 높아져서 이 한 발을 벗어 났다면 세세생생에 끄달리지 않을 겁니다. 생사에도 끄달리지 않을 것이요, 자유스럽게 깔깔 웃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죠. 부처님께서는 자유인이시죠, 부처님이라는 이름은 모두 둘이 아닌 까닭에 부처라고 했고, 둘이 아닌 까닭에 여여하게, 정맥 동맥이 딱 같이 돌아가니까 즉 여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어느 분 한 분을 가지고 부처라고 했던 게 아니고 여래라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를 진짜로 부처로 만드실 수 있어야 합니다.

불법을 배워야 할 당위성

문 왜 우리들은 불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중생이 세상을 살다보면 생노병사를 비롯해서 슬프고 괴롭고 어지럽고 하는 많은 일들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을 증득해야만이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마음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부처님의 세계를 증득을 하게 되면 어떠한 세계가 열리려고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지요?

답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은 이 도리를 알지 못하고는 도저히 나한테서 벗어날 수가 없고 너와 나한테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렇게 된다면 사생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끄달리게 되면 영원히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도리는 알아야 되겠다 이러는데, 왜 여기서서는 몰락 놓으라고 하느냐.

만약에 어떠한 것을 체계적으로 규명을 지어서 이것을 가르친다면, 이 선법이라는 것을 규명을 짓고 틀이 딱 짜여져서 가르친다면 이 전체 일체 사생하고도 화합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 할 수가 없고 같이 말을 할 수가 없고, 같이 들을 수가 없고 같이 볼 수가 없고, 이런 까닭에 나는 그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까닭에 내가 이 도리를 공부할 안 하면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무(無)의 세상이나 무의 법, 무의 활용, 유(有)의 활용, 유의 법에서 모든 진리의 규범된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고(苦)를 받는데, 그 결과에 도달을 하게 되면 또는 그거를 알게 된다면 그것이 전부 옹황이 돼서 나는 자유권에 도달하게 되

▶▶▶ 30면으로 계속

못났든 잘났든 자기 마음의 주인이 제일

29면에서 계속

죠. 대자유인이 되는 거지요. 그럼으로써 우주의 이 섭리나 지금 세상의 섭리나 모든 걸 알게됨으로써 또 세상의 생명들이나 보이지 않는 생명들이나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나 보이는 모습들이나 다 자기가 잘나잘나에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활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한의 묘법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자기가 벗어나는 반면에 자기는 자유인이 됴므로서 슬퍼도 슬픈 걸 모르고, 괴로워도 괴로운 걸 모르고, 또 욕심도 애착도, 이런 것도 다 녹아버려서 항상 잘나잘나 하루살이로 살면서 여여하다는 그 말도 하나 붙지 않고 그대로 저 강물이 저렇게 아무 틀이나 틀이거도 도도하게 흐르듯이 그냥 그대로 흐른다 이겁니다.

자유인에게도 내가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나라고 하는 문 그 나가 없다고 하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하다. 영원하지가 못하고 항상 바뀌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네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나를 죽이는 거라고 봅니다. 나를 죽임으로써 진리의 세계를 보거나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자유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인이 될 때에도 ‘나’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나오 인해서 온다. 그러니까 나한테로 일단은 다 나와. 그러면 나한테 놓으면 나로 인해서 나를 거쳐서 바깥으로 나기도 하고 들기도 하는데 그것이 뽕뽕 한 군데서 나고 든다는 것을 자기가 증득한다. 그것을 인다면 스스로 자기는 감응이 되고 스스로 자기의 자기가 틀이 아니게 된다 이겁니다. 스스로 즉 말하자면 틀이 아니게 자기가 발견이 된다면 그때서부터 진짜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그 자심을 얻었을 때 첫째 타심통이 옵니다. 타심통이 올 때는 그걸 자심으로 돌려라. 자심으로 돌려라 바깥으로 돌려라 게 아니라 인으로 자심을 다시 돌린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속명통이 온다. 타심통이 올 때는 속명통까지도

오거든요. 그러면 속명통이 오게 되면 그 속명통조차도 자심으로 돌린다. 또 천안통이 오면 천안통대로 자심으로 돌린다. 또 천이통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도 나의 자심으로 돌린다. 그럼 신족통이 온다 하더라도 그런 자심으로 돌린다.

다섯 가지를 왜 다 자심으로 돌려야만 되느냐. 이것이 타심통으로 왔을 때에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다 알게 되죠. 오 속은 요렇게 저 속은 저렇고. 그런데 만약에 그걸로써 끝난다면 그건 점쟁이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또 속명통이 올 때 그것을 바깥으로 발설을 해서 지나온 걸 다 아는 그런 말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점쟁이하고 미치광이가 된단 얘기도. 자유권을 얻지 못하는 그런...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타심통도 자심이요, 속명통도 자심이요, 천이통도 자심이요, 신족통도 자심이요, 천안통도 자심이요, 이렇게 자심으로 돌려라 보면 그때 무심이 되는 겁니다. 무심이 됐을 때에 무심이 됴므로서 무심에서 이 끝수를 통해서 그대로 또 작용을 할 때에 이 무심 자체도 인제 없어지는 겁니다.

오신통에서 벗어나면 그때에 이제 활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위법의 활용을 하는 데에 이젠 각본대로 오는 거를 자기가 오는 대로 그 속달을, 즉 말하자면 저승에 가서 죽은 사람을 만나 봐야 될 때는 저승에 가서 죽은 사람을 만나 보기도 하고, 이승에서 만나 볼 때는 이승에서 만나 보는데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에게 있는 전자의 속명을 보면서 그것을 다 속달을 하는 거죠, 체험을 하고. 그 누진통을 배우기 위해서 그것이 속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도 놓고 저 사람이 어떻게 지내온 것도 놔야 되고 저 사람을 내가 두루 보는 것도 놔야 하고 듣는 것도 놔야 하고 가고 있는 것도 놔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오신통에서 ‘아, 이것이 이렇게 내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게 돌아가는 거로구나.’ 하고 그때서야 오신통에서도 딱 벗어나고 무심으로 벗어나는 겁니다.

무심으로 벗어났을 때에 그때 오신통을 하는 거를 하나하나 인제 정작 배우는 겁니다. 오신통을 벗어난 뒤에 오신통을 하는 거죠. 오신통 하는 거를 속달하는 거구요. 그것을 1차의 면벽, 2차의 면벽, 계단 없는 면벽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리고 3차의 면벽이 되면 오신통도 벗어나서 정작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듣는 것도 보는 것도 하나하나 동시에 굴릴 수도 있고, 중심점이 있기는 있는데 중심점이 없는 것이 왜냐하면 이 자의와 타의를 다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의와 타의를 다 놓았기 때문에, 별래 하나 풀 한 포기도 다 놓았기 때문이 이것이 풀 한 포기도 버릴 게 없는 겁니다.

무아가 돼서 내가 했다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기종도 없고 목적도 없으면서 딱 부닥쳤을 때에 그대로 그냥 저절로... 마치 물과 불이 한번 딱 칠 때에 불이 반짝 일어나듯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산은 푸르다고 이라는 것은 전체를, 물이 흐르다 하는 건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대로, 그대로 그냥 타치는 대로 옹도대로 돌아가니 그래서 하루살이요. 판단이 개재되지 않고 뭘 해야겠다 이런 것이 없이 저절로 그렇게 되어간다 이거지요. 자동적이고 자동 컴퓨터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위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무위법으로 인해서 보이는 생명들, 보이지 않는 생명들, 보이지 않는 체, 보이는 체, 이런 것을 다 포함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통일을 한 발 앞당기려면...

해년마다 6월이면 호국보훈의 달이라 하여 이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산화해 가신 모든 영령들을 추모합니다. 그렇지만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진 이 한반도가 반 토막으로 살아온 자가 벌써 60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통일을 한 발 앞당길 수 있을까요?

통일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 삼라만상에 다 통령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지금으로 치면 희의를 해서 적합하다 할 때에 하게 된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느 사람이 주어져서 그 사람이 움직여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말하자면 굴레 없는 수레라고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데에 연기처럼 구름이 돌아가듯 이렇게 돌아가서 통신이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그렇게 돼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道理를 다 알았으면 뭐 천지가 뒤집힌대도 걱정 없지만 그렇질 않으니, 지금 우리 국내에서 살기도 너무 어렵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도 그렇고 남북통일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떡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를 한 번 생각해 봐서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해야 몇 년 지나면 스트르 이렇게 돌아서 되는 거지 억지로 강제적으로 뛰다가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뛰든지 언제나 이렇게 스무스하게 돌아서 돼야 되겠죠.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부들 빨리 서둘러서 꼭 이거를 해야 한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이 집이 위태롭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위태한데 그 위태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하고. 그러는데, 삼분지일은 공해로 인해서 생기고, 오존층이라고 할까 이게 자꾸 얇아져 되니까 얼음이 만악에 다 녹는다고 해봅시다. 땅덩어리는 파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잠들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공부를 해서 그 모든 것을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마음이 자리밖에는 없다는 거, 우주하고 통회할 수 있는 것도 마음밖에는 없다는 거,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생활의 문제든 통일든 문제든 지구의 문제든 그 자리에서 다 해결이 되게끔 말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지금 한철에 차원이 높아져서 한 발을 벗어 놓는다면 세세생생에 꼬달리지 않을 겁니다

무심 자체라는 그 연어도 없어지는 거죠. 왜? 끝수를 통해서 이거는 자유자재하게 굴리는데 거기서 또 이 자심이라는 걸로, 이 하나로 들고 난다 하는 걸 그거를 무심으로 돌리기 위해서, 공심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굴리는 것을 속달을 하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이 다섯 가지를 자심으로 돌렸을 때에 그걸 속달을 또 해요.

이거는 하나로부터 모든 전체가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하나로부터 무엇이 돌아가느냐 하면 이 가고 올이 없는 것도 하나로 인해서 내 마음으로 돌려서 가고 올도 없을 것이요, 두루 보는 것도 가고 올도 없을 것이요. 보는 것도 없을 것이요. 남의 모든 마음을 안다 하더라도 아는 게 없으며, 또 속명을 안다 하더라도 아는 게 없으며, 이렇게, 이렇게 돌려 가지고 그것이 다 됐을 때에 오신통에서도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놓는 반면에 말입니다.

이젠 1시간만 투자하면 완벽한 절이 됩니다!!! 절을 극차게 잘하는 법

(홍홍호 호풍법의 최첨단 건강 비법 공개 수련회)

- 입은 숨을 쉬는 곳이 아니고 코입니다.
- 세치의 허를 잘못 눌려 망신 당하는 것 보다 입 벌리고 숨을 쉬어 병나고 망하는게 더 우선입니다.
- 절, 영불, 독경, 주례 수행하고, 노래 할때 어깨, 가슴을 들먹거리며 일으로 숨을 들이 쉬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병고액년의 어리석은 짓이다.

○합창하고 일어서서 때 저절로 단전 호흡이 되어서 우주의 밝은 에너지가 꽉 차는 경지!!!

● 절할 때 힘이 빠지고 몸살나고, 피곤하고, 지치고, 정신 사나고, 발, 무릎, 허리 아픈게 호흡을 잘못된 것

○점주례에서 숨을 내쉬며 날숨이 길어져 나쁜 기운은 순간 빠져 나가고 엔돌핀, 쾌락 호르몬인 토파민은 끊임 없이 나와서 평화롭고 행복하고 행복로우며 언제나 생생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체험하는 경지!!!

○혈액기어머 일으켜 숨을 쉬는 역호흡은 불행과 병고액년의 처지 원인!!!

- 상기병, 냉병, 소화불량, 당뇨병, 고혈압, 비만, 디스크, 관절염, 신경통, 이도염, 비염, 축농증, 우울증, 불면증, 감기몸살, 만성피로, 자궁근종, 변비, 자폐증, 치매 환자는 100% 입으로 숨을 쉬는 역호흡으로 찬바람, 먼지, 세균, 병원균 직접 입으로 들어와 몸이 차가워 지며 성인병의 원인! 공부, TV 시청, 컴퓨터, 잠잘 때 입벌리고 있으면 비보나 병자, 불행한 사 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니 빠르시일내에 수련에 동참하여 자유 하십시오.

★푸름이 맑게 절하는 수행으로 단시일에 극복된 사례가 대단이 많습니다 ★

- ▶ 수련일시: 매주 화요일 밤 2시, 저녁 7시
- ▶ 수 련 비: 입외비(만원), 수련비(2만원 : 3회 교육 가능)
- ▶ 오시는 길: 지이철 5, 7호선 군자전철역 4번 출구에서 전호방향으로 100M 이망스 가루 4층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 전화 : 02)456-4994, 0035 http://cafe.daum.net/sorisan

“숨을 극차게 잘 쉬는법” 책 9월 출간 예정

행복한 길로 초대합니다 ◆ 연린다선방 불교대학

반야심경 설법 특강 수행

반야심경을 알아차리고 체득하는 데에는 지식, 지혜, 지능은 무관합니다. 오직 오묘한 심심과 수련수행으로 인생을 굴리고 허공을 삼키는 주인공 되어 정신 건강, 몸 건강, 돈 건강 찾아 리더로 세상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가짜칩니다. 반야심경을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 마하반야바라밀

한국불교 1,600년사에 한문 반야심경(270자)을 우리 반야심경(400자로) 예뵌 통합합니다. (해석: 법성)

- ◆ 개강일자 : 2004년 9월 11일, 12일 (3개월)
- ◆ 모집정원 : 토요일만 30명, 일요일만 40명 매주 토, 일요일 출석
- ◆ 공부과정 : 주인공 찾기 6층 과정 수행, 반야심경 설법, 108 참회선법, 요가, 통성예불의식
- ◆ 입학자격 : 대장부력, 여장부력, 눈 밝은이, 출가 의망자, 건강 찾고 싶은 분 (속식가)
- ◆ 현재 여름수련대회 매주 토요일 개최 중
- ◆ 안내전화 : 031-674-7188, 017-203-9400
- ◆ 교통안내 : 양지 IC 20여분, 일주 IC 10여분, 안성 IC 25여분 소요, 고속버스는 죽산, 안성 하차

황토로 지은법당 백마사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울곡리 산 125

전자식 2중문 3중정보 특히 불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움직이거나 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043-647-2378, 011-467-1472

불교신주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부처님 가르침을 건강이시고 날마다 좋은 날이 행복이세요

7월의 하늘이 너무도 맑아 가만히 바라봅니다. 삶의 번뇌하나 가슴으로 남아 요즘 어려운 경제 관계로 힘드시죠? 다소 도움이 되어 보고자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저렴한 비용으로 회원등록을 해드리겠습니다. 성혼을 이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 이영숙 회장
■ 대우, 조: 최신 신원 확실히 직업 확실히 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들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현대결혼연구원에서는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 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사무실: 032)345-5411
휴대폰: 011) 288-2944